

# 중대재해 예방, 영상으로 알기 쉽게

### 전북자치도교육청, 대응 요령·상황별 조치사항 담은 콘텐츠 제작·보급... 보고체계 이해력 높이는 데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상황별 조치사항이 담긴 영상콘텐츠를 제작,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영상콘텐츠는 각 학교와 기관에서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의사소통사항과 대응요령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보고체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중대재해 예방 영상콘텐츠.

중점을 뒀다.

총 7편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대응 요령,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넘어짐, 끼임·베임·절단, 화상, 감전, 가스누출, 일사병·열사병 등 6개의 상황별 조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월별 중점 안전보

건 관리대책을 수록한 안전보건달력도 제작·배부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영상이 각급학교와 기관에서 자체 훈련과 교육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2층 강당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강화 △영양교육·식생활 지도 강화 △식중독 관리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유치원은 연간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열린 급식 운영을 통해 유아 및 학부모에게 영양량,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식단표 등 급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근거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해야 하고,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유해물질이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유아의 영양관리기준과 신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보고·대응 체계 등을 안내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유치원급식의 품질 향상과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사립유치원 급식의 안정화 및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치원 급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초나래 시청각실에서 학력신장 지원을 위한 중등교장 대상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학교장들이 2024학년도 지원 계획 안내 유인물을 살펴보고 있다.

## 도내 중등교장에 올 학력신장 지원 계획 안내

### 전북자치도교육청, 211개 중학교·133개 고교 학교장 대상 설명회... 학습지원업 '올라' 첫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일 청초나래 시청각실에서 학력신장 지원을 위한 중등교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211개 중학교 및 133개 고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력신장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2024학년도 학력신장 지원 기본계획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안내 △JB 메타스쿨 소개 등이다.

먼저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을 분석하

고, 계획을 수립해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2월중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2~4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한 뒤 학교별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취수준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성취수준 진단도 강화된다. 이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현장에서의 다중적·심층적 진단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초3과 중1은 책임교육학년제 도입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체 실시를, 초 5·6, 중3, 고1·2는 적극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개발한 1학생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업 '올라'를 처음으로 공개해 시연하기도 했다. 이 앱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추적해 기록,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 최적화 된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에는 기초학력 책임제의 기틀을 닦았다면 올해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확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기계공고, 학생 위한 다목적시청각실 개관식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현)는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시청각실을 건립, 30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목적시청각실은 지상 2층으로 450석의 좌석과 무대, 음향장치 등의 시설을 갖췄다.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특강과 공연·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생김으로써 다채로운 교육과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45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의 개관을 축하했다.

임인현 교장은 "다목적시청각실의 개관이 전북기계공고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교육·문화가 함께하는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교육 공간으로 상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로봇 초·중등 캠프.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대, 자율주행로봇 초·중등 캠프 개최

### JST 공유대학 일한

전북대학교는 전북 새만금혁신도시(JST) 공유대학 일환으로 자율주행로봇 초·중등 캠프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캠프에는 전북대 등 도내 10개 참여대학 학생들과 초·중등학생 100명을 멘토·멘티로 연결, 미래인재 양성교육과정으로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이날 교육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 원리와 사례에 대한 이해 증진 △자율주행을 작동하게 하는 코딩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이와 관련된 팀별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해 미래 역량 제고 △팀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협업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강화 등을 목표로 전북대 RIS대학교육혁신본부가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는 (사)한국동남아학회, 서강대 동남아연구소와 공동으로 2월 1~2일 양일간 제6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사)한국동남아학회의 학회지 '동남아시아 연구'의 연례 특집인 '지역 동향 리뷰'의 필진을 초청해 온라인 줌을 활용한 실시간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지역 전문 연구자들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미얀마, 아세안의 지난해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망도 덧붙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각종 동향 리뷰를 녹화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출발한 설명회는 이후 실시간 웨비나 방식의 연례 학술행사로 정례화했다.

이번 설명회는 웹페이지 링크(https://bit.ly/KASEAS\_JISEAS\_6)를 통해 사전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29일(현지시각) 라오스에서 수파누봉대학교 언어대학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단과대학 차원 유기적 상호 협력 지속

### 전주대 사범대학, 라오스 수파누봉대 언어대학과 협약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29일(현지시각) 라오스에서 수파누봉대학교 언어대학과 상호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리태 개요부 아라랫 부총장과 분타위 개요부총 등 언어대학 학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2006년 라오스 제2의 국립대학인 수파누봉대학교 설립 프로젝트 컨소시엄에서 학교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설 및 선진 학사 운영시스템을 전수한 바 있다.

당시 수파누봉대학교의 부총장을 포함한 20명의 교직원 연수단이 전주대를 방문해 1개월간의 교육연수 및 전반적인 학사 운영시스템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GKS 정부 초청 외국인 장

학사업을 통해 라오스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의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라오스에서 협약을 주관한 박기범 사범대학장은 "수파누봉대학교 언어대학과의 MOU를 통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사범대학은 5주기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A등급) 표창을 받았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의 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으로서,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4주 동안 20명의 봉사단원이 교육전문가의 자격으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에서 전공 맞춤형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는 지난 24~27일 태국 방콕, 빠툼타니 소재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 JBNU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태국의 싸라릿타야 고교를 찾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대, 태국 주요 교육기관과 교류 강화

### JBNU국제센터 설립 협력체계 구축 등 글로벌 교육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JBNU국제센터 설립 및 글로벌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4~27일 태국 방콕, 빠툼타니 소재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 JBNU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북대가 진행한 태국 중등교육기관 교장단 방한연수에 참여한 태국의 싸라릿타야 고등학교를 찾아 우수 학생들의 전북대 학부 학위 과정 입학에 대해 교장단과 협의했다.

현재 싸라릿타야 고등학교에는 한국어전공을 개설, 현재 고등학생 100여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태국 방콕 소재 자매대학인 시나카릿위트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시트하니 타미차이 학과장과 한국어학과 교환 등을 만나 단기 프로그램 등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시나카릿위트 대학 학생들이 전북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끝으로 태국한국교육원을 방문해 전북대의 유학생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태국 지역의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우수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외전공을 개설, 현재 고등학생 100여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방콕 소재 자매대학인 시나카릿위트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장은성 기자

## 최정범 신임 국립군산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당선

국립군산대학교 최정범(사진)씨가 국립군산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14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단일후보로 출마한 최씨는 투표자 147명 중 143명 찬성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거는 지난 29일 한국전자투표서비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91.8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최정범 회장은 "2022년도 3선에 이어 대학 최초로 29일에 실시한 4선 지부장으로서 당선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조합원을 위해 몸을 내어주어 거친 물결을 함께 건너게 할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청년조합원들이 미래세대 노동조합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청년조합원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산=김관희 기자

